

새로 나온 책

▶시작점(이량덕 지음·그림)=제5회 사계절그림책상 수상 수상작. 작은 점 하나에서 출발해 문고리, 씨앗, 시곗바늘 등 일상 속 발견을 통해 이야기를 펼쳐낸다. 흐릿해진 기억이나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시작점들을 찾아내는

감각을 일깨우며, 모든 일의 출발에 깃든 '처음'의 의미를 환기한다. 독자들로 하여금 일상의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림책이다. 사계절. 1만5000원.

▶포도빛 바람이 불어오는 곳, 부르고뉴(이석인 지음)=와인 전문가인 저자가 세계 최고의 와인 산지 프랑스 부르고뉴를 여행하며 쓴 기록. 부르고뉴 와인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역사·문화·예술의 풍경까지 아우른다. 그의 발견을 따라가다 보면 당장이라도 현지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며, 책을 읽는 내내 매혹적인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다. 휴머니스트. 2만2000원.

▶영혼 없는 작가(다와다 요코 지음·최윤영 옮김)=일본어와 독일어로 글을 쓰는 이중 언어 작가의 에세이집. 2011년 초판 번역본 출간 후 절판됐던 책의 개정 증보판으로, 기존 14편에 9편을 더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부터 시작해 독일·일본·미국을 거쳐 캐나다 토론도 공항에서 끝을 맺는다. 여정을 함께하다보면 나라와 도시·현실과 환상·언어와 사물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엘리. 1만8000원.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김창윤 지음·사진)=제주도 육상연행 이사·부회장을 역임하며 제주 육상 발전에 힘써온 저자가 해파랑길 50코스 770km를 걸으며 동해안의 도시, 바다, 산과 들판을 코스별로 담아냈다. 대부분 혼자 걸었지만 함께한 동반자와 친구, 선배와 나는 이 이야기 삶의 활력이 됐다고 전한다. 현장의 풍경을 담은 사진도 함께 수록돼 독자도 함께 걷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농원과 원예. 2만2000원.

▶파도야, 너는 누구냐(고유봉 지음)=수십 년 전 낙후된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대 수산학과 1기로 졸업하고,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정년퇴임한 저자의 두 번째 자서전. 사회참여와 봉사에 방점을 찍으며 그간의 삶과 경험을 미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풀어냈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부터 옛 추억과 내가 살던 곳, 그간 만난 다양한 인연까지 폭넓게 담았다.비매콤. 김재현기자

이책!

어디까지나

『가깝고도 먼 곳』



4·3과 노년의 성찰... 묵직한 마지막 조언

연작소설 '제주항'의 오경훈 작가(1944~2025). 그는 제주섬의 역사와 현실을 문학으로 담아온 작가였다.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그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소설집 '가깝고도 먼 곳'이 최근 출간됐다.

이 소설집의 원고는 지난해 겨울 이미 출판사로 넘어가 있었다. 그러나 81세 나이에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책은 그의 유고집이 됐다. 이번 소설집에는 표제작을 비롯해 '열종이 사설', '사교', '실향', '마을제', '악마는 숨어서 웃는다' 등 단편 6편과 중편 '강정 길 나그네' 등 총 7편을 실었다.

"원한을 풀고 화해하여 다시는 이 마을에서 다랑쉬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후대 후생들이 다시는 이 일로 찌그러져서 거두고 토라지는 일이 없게 하시어 모두 발전에 힘을 모으게 하소서."('마을제' 중)

오래 전부터 제주 4·3을 탐구해온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서도 4·3을 다룬다. 단편 '마을제'에서는 4·3의 참상을 알린 '다랑쉬굴 사

건'을 마을 주민의 눈으로 되짚고, '실향'에서는 4·3으로 인해 뒤엉킨 가족의 수난이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음을 짚어낸다. 중편 '강정 길 나그네'는 4·3의 격랑에 휩쓸리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노인 '김석우'가 4·3 때 누나를 총살한 전직 경찰의 장례식에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 4·3의 깊은 상처와 관련된 현실에서의 용서와 화해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전한다.

해설을 쓴 김동운 문학평론가는 "작가는 4·3의 문제를 과거의 특정한 사건으로 한정시켜 두지 않는다. 끊임없이 지금·여기와 소통하는 가운데 절실한 당면 과제로 오히려 끌어온다"며 "마을공동체에 대한 확장된 인식을 통해 4·3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평했다.

"그 때 우리들의 물놀이는 참으로 아름답지 않았던가. 결국 불행을 만든 원인으로 귀결된다고 해서 그 때의 그림이 지워지겠는가."('가깝고도 먼 곳' 중)

이밖에 노년의 일상과 성찰을 묵

직하게 다룬다. 표제작인 '가깝고도 먼 곳'은 장애인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니는 한 노인이 두 해간 돌보았던 스물한 살 '덕진'에게 했던 선의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면서 느낀 감정들을 담아낸다.

'열종이 사설'은 농장 일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련하고 나약한 존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사교'는 실직 후 오랜 구직 활동으로 청소자를 운전하며 살아가는 '석주'라는 인물을 통해 불행과 죽음을 겪는 인생의 의미를 되새긴다. '악마는 숨어서 웃는다'는 2007년 9월 태풍 나리 때의 복개전 범람에 따른 참상을 재현하며 개발 지상주의의 폐해를 지적한다.

제주 구좌 태생인 작가는 25년간 교사를 재직 후 5년여를 기자로도 활동했다. 1980년대 '경자시대' 동인으로 활동하며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했고, 1987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했다. 첫 소설집 '유배지'를 비롯해 장편소설 '침묵의 세월', 연작소설 '제주항' 등을 펴냈다. 각. 2만원.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삶이란
앞을 모르는 사람이
어둠 속을 더듬고
막대질하는 건가...

- '사교' 중 -

나이 들, 차분한 삶의 정서로

양전형 시집 '나 다시 필거야'

"꿈같은 듯 가는 길 / 숲이 낙엽
떨구며 통곡하는데 / 그림자 없는
날빛 새비날 영혼 / 무의식의 인
어로 말한다 / 울지 마! 나 다시
필 거야" ('나 다시 필거야' 중)

늦가을 어느 들녘에서 마주한
시들시들해지는 새비날(짚레나
무)을 발견하고 쓴 시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나타낸다. 자연에서 인간의
세계를 탐색해 온 제주 양전형 시인이 7년 만에 펴낸
시집에서 이를 서정 언어로 풀어냈다.

시인의 열두 번째 시집 '나 다시 필 거야'는 총 5부
로 구성해 72편의 시를 묶었다. 시인은 나이가 들에
따른 의식을 뚜렷하게 보이면서도 공포 또는 허무주
의로 빠지지 않고 차분한 삶의 정서를 시적 언어로 보
여준다. 해설을 쓴 김신자 시인은 "시인의 시는 인간
에 대한 사랑이 내재해 있다"며 "그의 시편들은 수공
예적 기교와 기발한 착상이 재치있고 유연한 언어 구
사가 빛을 발한다"고 평했다. 한그루. 1만원. 박소정기자



시인의 노트... "나에게 주는 선물"

이명혜 시집 '이 강물 끝에서 만나자 하였네'

"그 강물 끝에서 만나자 하였네
/ 경계에 선 열정의 밀도가 궁금
하다 / 무엇을 위한 흐름이었을
까 / 밀지도 밀리지도 않으려나
/ 나는" ('수목의 여자' 중)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인 제주
이명혜 작가가 시집 '이 강물 끝
에서 만나자 하였네'를 냈다.

총 5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일상 또는 여행에서 마주
한 사람과 풍경들을 바라보며 시적 순간을 포착해 표현
한 75편의 시가 실렸다. 그의 시는 때로는 잔잔하게, 때
로는 날카롭게 다가온다. 서글픈 회한과 체념보다는 부
드러운 수용과 울림 있는 성찰이 시집 전반에 흐른다.
시집의 끝자락에는 '작가 노트'도 담겼다. "이 시집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글처럼 시인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시 쓰는 작업에서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다.

시인은 1999년 '한국아동문학'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아동문학가로, 2022년 '스토리코스모스'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한그루. 1만원. 박소정기자



4·3 광풍 속 의료인들의 고민·희생

백재중의 '제주 4·3과 의료인들'

"제주 4·3항쟁 시작 무렵 도내
에는 의사가 50명 안팎. 간호사
10명 이내. 약사 1명 그리고 제
한적으로 약 판매가 가능한 약
종상이 130여 명이였다. 전부 다
합쳐도 200명이 넘지 않는다."

의료계의 시각에서 제주 4·3을
돌아본다. 의사인 저자 백재중
은 보고서, 논문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4·3 당시 제주
의료인들의 고민과 선택, 행동, 희생을 들여다본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일제강점기, 해방 후, 4·
3, 한국전쟁 그리고 4·3치유과정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서술했다. 각 시기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
과 이에 대응하는 제주 의료계의 활동을 담았고 의료
인들의 피해와 희생도 담았다.

저자는 "광기의 시대에 제주 의료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처신했을까"라며 "4·3 속에서 의료인들의
고뇌와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 중 하나"라
고 했다. 건강미디어협동조합. 1만6000원. 박소정기자



전국 꽃배달 서비스

제주에는 꽃보라플라워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 농장

☎ 746-0014, H-P 010-3693-5563

제주시 신광로 8길 3(연동)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장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주입구

공간을 채움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 010-9086-8965